

대한민국 항공안전,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

-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7개 부처·4개 공공기관 합동 대응
-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항공교통 구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*)의 ‘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’ 평가(12.2~12.15)에 대비해 7월 9일 오전에 열린 제11회 국가 정책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.

*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(ICAO):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증진 및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및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(우리나라는 '52년 가입)

○ 이번 평가의 대상은 7개 부처*, 4개 공공기관 및 항공업계가 포함되며 항공관련 9개 분야(법령·조직·종사자자격·운항·항공기감항·사고조사·항행 지원·공항·안전관리)가 해당된다.

* 국토교통부,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, 국방부, 기상청, 소방청, 해양경찰청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(공공기관) 한국교통안전공단, 항공안전기술원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

□ 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,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.

○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.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○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항공 안전법('26.6) 및 공항시설법('26.7) 등을 개정*하였고,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.

* 항공사 운항증명·공항운영증명·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, 산업계의 자체 안전 관리시스템 승인감독절차 보강 등 74개 조문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, 항공철도사고조사위,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,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	권혁진 (044-201-4681)
			사무관	손경화 (044-201-4251)
담당 부서	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	책임자	과 장	최현용 (02-748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준 (02-748-5758)
담당 부서	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수희 (042-481-74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영 (042-481-7451)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	책임자	사무국장	류경진 (044-200-1910)
		담당자	사무관	허준녕 (044-200-2362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